

# 평준화를 생각해 본다



이현숙(영등포 신문 편집국장)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평준화란 자연적인 개체별 차이를 균일되게 조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같은 무우로 만든 무우김치도 생김새와 양념의 종류, 숙성도, 버무린 사람의 손 맛 등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거늘, 엄연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깎두기 썰 듯 똑같은 크기로 잘라 똑같은 양념을 버무리고자 한다.

하등 동식물의 세계에도 우월이 있음에, 하물며 고등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랴.

우리 나라에서 세계 최고인 것 중 하나가 국민의 교육열이다. 잘 지은 자식 농사를 위해 본인의 능력이상으로 열과 성을 다한다. 한모삼천지교라 하던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다시 미국으로 떠남을.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아이들 공부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살거나 아예 이민선을 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니,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내 자식에게만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부모들의 욕구를 누구도 탓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회 균등 제공도 중요하지만 기회 선택권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선천적인 소질 이외에도 후천적 교육의 형태에 의해서 과학자로, 예술가로, 스포츠맨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격체로 다시 태어난다.

또한 경쟁에 의해서 발전한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자 세일하는 학교, 교육 일선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자 최

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육은 발전할 수 있다.

최근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불만 섞인 이들의 목소리를 일부나마 수용함으로써, 해외로 나가는 인적, 물적 자원을 이 땅에서 재생시켜야 한다. 물론 고교평준화 실시의 취지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정책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문제가 터질때마다 땀 질식 임기응변 대응은 이제 안된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ENP